

2주간 감염경로 불명 13.7%로 상승...한달 만에 200명대

10월 마지막주 130명대까지 감소했던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최근 급증해 한달여 만에 200명대로 집계됐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를 기준으로 10월 26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고된 환자 1591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18명이다.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마지막주 200명을 넘은 건 10월 8일(204명) 이후 31일 만이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0월 25-26일 이틀 동안 133명까지 감소했던 2주간 감염 경로 조사 중 환자 수는 11월 2일 171명에서 3일 145명

18일만에 13%대...10월 마지막주 133명서 64% ↑

집단발병 36.1% 해외유입 18.5% 접촉 18.2%

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다시 증가하면서 최근 닷새간 178명→183명→184명→192명→218명 등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후 환자 수를 보면 전체 확진자는 1252명에서 1591명으로 27.1%(339명) 늘었는데 같은 기간 감염 경로 조사 중 환자는 133명에서 218명으로 63.9%(85명)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때 핵심 지표로 1주간 일평균 국내 발

생 환자 수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감염 경로 조사 중 환자의 비율도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10월 21일(13.2%) 이후 17일간 10~12%대였던 전체 확진 환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18일만에 13.7%로 상승했다.

1주 단위로 보면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앞선 한 달간 2주간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은 18.2%→11.9%→8.7%→13.9%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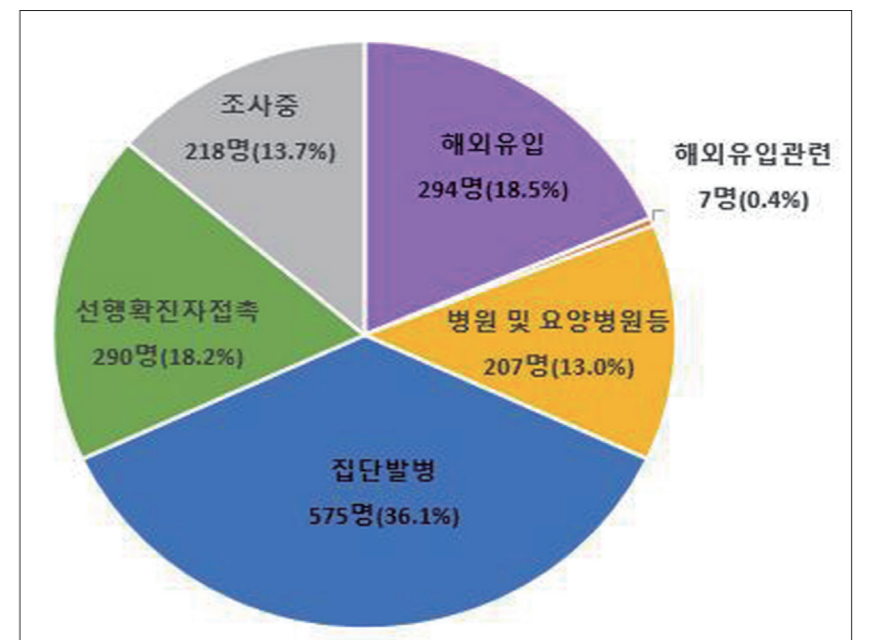
확진 당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건 당국의 방역망 관리 밖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추가 전파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첫 주간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발병 사례가 575명으로 가장 많은 36.1%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 유입 294명(18.5%), 선행 확진자 접촉 290명(18.2%), 병원 및 요양병원 등 207명(13.0%), 해외 유입 확진자 접촉 7명(0.4%) 등이었다.

기획재정부



광주 모 오피스텔 외벽에 걸린 대금 분쟁 현수막

7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모 신축 주상복합오피스텔 외벽에 대금 지급 문제를 두고 시행사·하청업체의 대립하는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상 상습 행패 '전남 길거리 폭력배' 474명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특별단속 22명 구속...재범률 높아

일상생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길거리 폭력배'가 무더기로 전남경찰청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2달 동안 생활 주변 폭력배 특별 단속을 벌여 474명을 붙잡아 이중 2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은 만취 상태에서 영세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부당한 유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 사례가

40대(28.7%), 50대(25.1%), 60대

이상(20.9%), 30대(12.6%) 순이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 경찰서별 신고·상당 창구를 운영, 생활 주변 폭력배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했다. 종합적·입체적인 수사로 엄정한 사법 처리에도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취 폭력 등으로 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신안군 천사대교 과적차량 증가...주·야간 집중단속

양체 과적차량 단속 취약시간대 운행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 이후 과적차량 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천사대교가 개통한 후 암태도와 자은도, 팔금도, 안좌도를 찾는 차량들과 함께 과적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암태도와 자은도를 잇는 은암대교는 물론 팔금도와 안좌도를 잇는 신안1교까지 과적차량들로 인해 교량시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 교량들의 제한중량은 천사대교의 경우 43.2t, 은암대교와 신안1교는 모두 24.3t이다.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단속반은 이 지역 교량시설을 통해 중인 차량에 대

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양체 과적 운전자들이 단속 취약 시간대에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경찰서와 관할 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적차량을 근절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유나기자

'만취상태서 과속' 추락사고로 친구 숨지게 한 20대 실형

범인이 음주운전 중 추락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편도 5차선 도로(여등대교 방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구간서 120.5km로 주행하다 오른쪽 차량 진입로를 가로질러 가로등·가드레일·가로수를 들이받고 8m 아래 도로로 추락, 차량에 불이 나게 했다.

재판장은 "A씨는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했다. A씨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하남 방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7~8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승용차는 주차된 화물차를 충돌한 뒤 곧바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로 참작했다"며 실형 선고 뒤 법정 구속했다.

김미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